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이 진 수(02-2100-2990)	담 당 자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92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3145-7550)		여신금융총괄팀장 이 종 오(02-3145-7447)
	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배 종 균(02-2011-0602)		이 경 원 부장 (02-2011-0742)

제 목 :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,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.

- ①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,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.

연매출 구간		카드수수료율 (괄호 : 체크카드)		수수료율 감소분 (괄호 : 체크카드)
		현행	변경	
영세	3억 이하	0.8%(0.5%)	0.5%(0.25%)	△0.3%p (△0.25%p)
중소	3~5억원	1.3%(1.0%)	1.1%(0.85%)	△0.2%p (△0.15%p)
	5~10억원	1.4%(1.1%)	1.25%(1.0%)	△0.15%p (△0.10%p)
	10~30억원	1.6%(1.3%)	1.5%(1.25%)	△0.1%p (△0.05%p)

- ② 소비자·가맹점·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, 가맹점, 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

- ③ 향후 카드사가 결제·금융상품 추천·자금관리·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.

1 추진배경

□ ‘12년 이전,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

*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(최저 1.5%)과 일반가맹점(최대 4.5%)간 수수료 격차 존재

○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‘12년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이 개정되어,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.

*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(이하 "적격 비용"이라 한다)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(여전업감독규정 §25의4)

□ ‘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(※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)

○ 특히, ‘12년(0.33조), ‘15년(0.67조), ‘18년(1.4조) 등 3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‘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. (누적 절감분 : 연간 2.4조원)

⇒ ‘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,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합니다.

<그간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>

※ : 우대가맹점		신용카드 수수료율 (괄호 : 체크카드)		
		‘12년말 개편결과	‘15년말 개편결과	‘18년말 개편결과
연 매 출	2억원 이하	1.5%(1.0%)	0.8%(0.5%)	0.8%(0.5%)
	2~3억원	2.12%(1.6%)	1.3%(1.0%)	
	3~5억원		2.09%(1.6%)	1.3%(1.0%)
	5~10억원			1.4%(1.1%)
	10~30억원			1.6%(1.3%)
	30억원 초과			2.06%(1.47%)
연간 누적 절감 규모 (연간 추가 절감 규모)		약 3,300억원 (+3,300억원)	약 1조원 (+6,700억원)	약 2.4조원 (+1.4조원)

2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

가. 산정기준 및 절차

□ (산정기준) ①자금조달비용, ②위험관리비용, ③일반관리비용, ④승인·정산비용, ⑤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하여 적격비용 산출

□ (산정절차)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·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·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

* (여전업감독규정 §25의4①iii) 객관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.

나. 적격비용 산정 결과

□ '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,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**0.69조원**입니다.

○ 다만, '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금액*(연간 약 0.22조원)을 감안할 경우, 금번 추가 경감 금액은 0.47조원입니다.

*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(2차 PG사의 하위사업자*)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토록 대상 확대('19.4월~) 등

※ 예) 온라인사업자 A는 다른 PG사의 하위가맹점인 PG사(2차 PG)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고, 우선 일반 수수료율을 납부한 뒤 3영업일 뒤 환급(일반 - 우대수수료율)받는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중

<주요 수수료율 하락요인>

- ①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
- ②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
- ③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뱅수수료비용 감소

3 카드 수수료를 조정

□ 금번 수수료를 조정대상 금액(약 4,700억원)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조정합니다.

- 조정 금액의 ①약 60%를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에,
 ②약 30%를 연매출 3~10억 중소가맹점에,
 ③약 10%를 연매출 10~30억 중소가맹점에 배분합니다.

<신용카드>

연매출 구간		카드수수료율		수수료율 감소분
		현행	변경	
영세	3억 이하	0.8%	0.5%	△0.3%p
중소	3~5억원	1.3%	1.1%	△0.2%p
	5~10억원	1.4%	1.25%	△0.15%p
	10~30억원	1.6%	1.5%	△0.1%p

<체크카드>

연매출 구간		카드수수료율		수수료율 감소분
		현행	변경	
영세	3억 이하	0.5%	0.25%	△0.25%p
중소	3~5억원	1.0%	0.85%	△0.15%p
	5~10억원	1.1%	1.0%	△0.10%p
	10~30억원	1.3%	1.25%	△0.05%p

4 기대효과

- ① '18년 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 추가 경감분은 연간 **0.69조원**으로,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**2.1조원*** 수준입니다.

* '18년 수수료 개편방안 1.4조원 + '21년 수수료 개편방안 0.69조원 = 약 2.1조원

-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'17년 연매출 3억이하 → '18년말 연매출 30억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고(전체 가맹점의 96%)
- '18년, '21년에 걸쳐 구간별 수수료율도 크게 낮아졌습니다.



* '12년 이전 연매출 2억 이하는 약 3.6~4.5%, 연매출 2억 초과는 약 2.7~3.6% 내외 부담

② 금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이하 영세가맹점(약 220만개, 전체 가맹점의 75%)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(△40%) 되었습니다.

- '17년 이전과 비교시, 영세·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.

<신용+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*>

연간 매출액	가맹점수	'18년 개편 ('17년 比 감소율)	'21년 개편 ('18년 比 감소율)	'17년 대비 '21년 부담 감소율
연매출 3억이하	약 220만개 (전체가맹점의 75%)	최대 △41%*	△40%	최대 △64%*
연매출 3~5억	약 23만개 (전체가맹점의 8%)	△37%	△15%	△47%
연매출 5~10억	약 22만개 (전체가맹점의 7.6%)	△33%	△10%	△40%
연매출 10~30억	약 15만개 (전체가맹점의 5%)	△23%	△6%	△27%

※ 신용카드+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가중평균한 수치

* 영세가맹점 기준 개편('18)으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

<신용+체크카드 수수료 납부액 감소 사례>

연간 매출액 구간	연간 매출 구성 사례 (예시)	연간 수수료 납부액			'21년 - '18년 연간 부담 경감(B - C)	'21년 - '17년 연간 부담 경감(A - C)
		'17년 이전(A)	'18년 개편(B)	'21년 개편(C)		
영세 (연매출 3억이하)	<CASE ①> 카드매출 2억 신용카드 매출 1.5억원 체크카드 매출 0.5억원	245만원 (신용 1.3%, 체크 1.0%)	145만원 (신용 0.8%, 체크 0.5%)	87.5만원 (신용 0.5%, 체크 0.25%)	△57.5만원 (약 △40%)	△157.5만원 (약 △64%)
중소 (연매출 3~5억)	<CASE ②> 카드매출 4억 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	787만원 (신용 2.09%, 체크 1.6%)	490만원 (신용 1.3%, 체크 1.0%)	415만원 (신용 1.1%, 체크 0.85%)	△75만원 (약 △15%)	△372만원 (약 △47%)
중소 (연매출 5~10억)	<CASE ③> 카드매출 7억 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	1,365만원 (신용 2.09%, 체크 1.6%)	920만원 (신용 1.4%, 체크 1.1%)	825만원 (신용 1.25%, 체크 1.0%)	△95만원 (약 △10%)	△540만원 (약 △40%)
중소 (연매출 10~30억)	<CASE ④> 카드매출 20억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5억원	3,935만원 (신용 2.09%, 체크 1.6%)	3,050만원 (신용 1.6%, 체크 1.3%)	2,875만원 (신용 1.5%, 체크 1.25%)	△175만원 (약 △6%)	△1,060만원 (약 △27%)

【참고 :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】

- ◆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*의 1.3%('23년말 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)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(부가가치세법 §46)

* 신용·직불·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액

** 현행 매출세액공제(1.3%, 공제한도 1천만원)제도를 '23년말까지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('21.12.3일)

< 부가세 카드매출세액 공제를 고려한 연간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 예시 >

<CASE 1> 연매출 2~3억 / 카드매출 2억원 (신용카드 1.5억원 + 체크카드 0.5억원)

	'17년 이전	'21년 개편
(-) 연간 수수료 부담(%)	245만원 (신용 1.3%, 체크 1.0%)	87.5만원 (신용 0.5%, 체크 0.25%)
(+) 연간 매출세액공제(%)	260만원 (1.3%)	260만원 (1.3%)
실질이익(부담)	+15만원 이익	+172.5만원 이익

<CASE 2> 연매출 5~10억이하 / 카드매출 7억원 (신용카드 5억원 + 체크카드 2억원)

	'17년 이전	'21년 개편
(-) 연간 수수료 부담(%)	1,365만원 (신용 2.09%, 체크 1.6%)	825만원 (신용 1.25%, 체크 1.0%)
(+) 연간 매출세액공제(%)	910만원 (1.3%)	910만원 (1.3%)
실질이익(부담)	△455만원 부담	+85만원 이익

5 제도 개선 TF 운영

- '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.

- 특히,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감소* 하였고,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도 연매출 2억원 이하('12년)에서 30억원 이하('18년~)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
* (연매출 3억 이하) '12년 前 수수료율 최대 약 4.5% → '21년 0.5%

- 그러나, 제도 시행 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소비자, 가맹점,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* 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.

* (구성예시) 금융위, 금감원, 영세·소상공인단체,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, 소비자단체 등

①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

-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

②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 검토

* (참고) '18~'20년은 최저수준의 조달금리를 유지하였으나, '21년말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카드수수료 재산정시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

6 카드 산업 경쟁력 강화

- 카드사가 결제·금융상품 추천·자금관리·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**종합플랫폼 사업자로**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① (업무범위)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“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” 이 가능하도록 겸영·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*

* 예) 여전업감독규정상 신고없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중 플랫폼 관련 사업은 “통신판매업” 으로 한정되고 있으나,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급결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허용 예정 (☞ '22.上, 연구용역 등 추진)

- 또한, 카드사가 핀테크 社 등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및 검토*

* 예) 일정 범위 내, 카드사간 모집업무 제휴계약을 통해 카드사 앱에서도 다수 카드사의 카드 비교·추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(규제샌드박스 등)

※ 현재 여전법상 카드 모집시 1社 전속주의의 예외인 “제휴 모집인 제도” 는 신용카드 모집이 본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

② (데이터 경쟁력) 카드사 지급·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·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

- (i) 기존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,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에 더하여 데이터 관련 부수·겸영업무 확대

* 예) 00카드의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업무를 부수업무로 기허용('21.12월)

- (ii)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·결제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 (규제샌드박스 운용 병행)

*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목적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없이 활용할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기지정('21.10월)

- (iii)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·결제정보에 더해, 비금융 플랫폼 정보 등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쉐어파일러(Thin-filer)들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

※ 현재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평가 업무 등은 카드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이 제한되어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중

③ (인프라 경쟁력) 카드사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안전·편리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

* 예) (종전) 실물 신용카드단말기를 전제로 기술기준 운영 → (개선) 모바일 앱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도 실물카드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성을 가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정

④ (핀테크 출자 지원)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('19.10월~) 범위 내, 카드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을 적극 검토

*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(행정지도)은 금산법 또는 개별법상 출자제한 요건 등 법률상 명백히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

⑤ (디지털 혁신 지원)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발굴

* 예) 서면교부 원칙이었던 카드상품 약관을 전자문서 교부원칙으로 변경(법률 개정 추진)

7 향후 계획

- ☐ 12.24일(잠정),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(~12.31일)
 - ☐ 법제처 사전심사,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1월말 금융위 의결
⇒ '22.1.31일 부터 시행 계획 (※ 차기 우대가맹점 선정일자)
 - ☐ 카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
제도개선 TF를 구성 ('22.1분기중)
- ※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
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,
'22.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예정
- * (~'22.4월) 국세청 연계 시스템 등 구축 → ('22.5~6월) 시스템 테스트 → ('22.7월) 우대
가맹점 선정과 함께 '22.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실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